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7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440-2421 • 담당자 박은희 ☎440-24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에 총력

- 강화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로 총 6개소, 1,129명 수용 가능 -

- 박 시장, 강화 생활치료센터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

추석연휴를 전후로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강화군 소재 S 유스호스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신규 지정해 병상자원 추가확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7일부터 강화군 S 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생활치료센터 S 유스호스텔은 85실 규모로 170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

이로써 인천시는 생활치료센터 총 6개소에 1,129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자칫하면 코로나 중증환자 대상 병상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근 급증세에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 5개소 (영종 경정훈련원, sk 무의연수원, 청라 하나글로벌연수원, 백세 요양병원,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

그동안 인천시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통해 모범적인 인천형 방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발생 추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9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생활치료센터는 9월 25일 기준 가동률 82.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신속하게 추가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확보하고 추후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관내 학교 기숙사 및 호텔 등 운영 가능한 시설을 검토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9월 27일 오전 강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명절연휴 이후 타 지역 방문자 및 가족단위 접촉자로 인한 검사가 몰리면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각 군·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